

# 하상 주보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보좌신부: 양종욱 대건 안드레아  
사도회장: 안민철 미카엘  
연령회장: 홍익훈 요셉  
703-966-8206  
사무실: 703-968-3010  
팩스: 703-968-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AM (교중미사) * 2:00 PM (학생미사) * 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목,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5,5) · 희망의 순례자들



센터빌 2 & 4반 구역 미사

지난 8월 9일 토요일에는 센터빌 2&4반(구역 봉사자 박향숙 요안나 프란체스카)의 구역 미사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화창한 오후 2시, 송정환 분도 형제님 댁에서 집전된 구역 미사에는 모두 30여 명의 구역 신자들이 참석하여 미사를 참례하고, 다과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미사를 집전하신 배하정 다니엘 신부님은 “주임신부의 사목 방향의 한 축이 구역과 소공동체의 활성화이며, 이러한 구역 미사를 통해 사제와 신자 간의 소통은 물론 구역 내 이웃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미사에 모인 모든 분들도 이런 구역 미사로 이웃 간의 친교를 만들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하는 구역 미사를 통해 구역의 신자들이 더 가까워지고, 신부님과 성당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뜻깊은 자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역 미사 문의는 각 구역장님 또는 구역 담당 부회장 배성훈 디모테오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https://www.stpaulchung.org/>  
성 정바오로 성당 홈페이지





## “깨어있는 삶”

오늘은 연중 제20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하여 ‘깨어있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무엇에 깨어 살아가야 하는지,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한 행동은 무엇인지 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독서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부패와 부정이 판을 치고 있었고, 정치·사회·종교까지도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강대국들의 침공은 하느님의 경고이며 회초리였습니다. 이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나타나 정의를 선포하고 진실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이야기처럼 예레미야의 외침은 달갑지 않고 거부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즉, 예언자는 외로운 투쟁의 길을 걸어가며, 어떤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억압,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서도 예언자는 더욱 철저하게 하느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뜻밖의 사람 에벳 멜렉을 통하여 예레미야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시어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해 주십니다.

죽음의 진흙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 뜻밖의 구원자를 보내시어 우리의 손을 잡아 주고 계심을 의식해야겠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느님을 믿고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유다 왕 치드키야는 하느님의 말씀과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결단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자존심이나 체면, 두려움 등을 버리고 오직 하느님 편에 서서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루카 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는 충격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불은 심판의 상징이며 벌과 정화를 의미합니다. 즉, 불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가치의 실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승리, 곧 세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내가 살던 공동체로부터 결별하게 되고, 사회나 가정 공동체 안에서 마찰과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열을 통하여 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의 가치만을 선택하여 신앙의 기초로 만들어진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인의 삶’으로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성 현 대건 안드레아 신부  
/ 진광고등학교

### 전례상식 1

영성체 후 감실에 인사해야 하나요? 영성체 후 십자성호를 긋는 것은 어떨까요?



영성체 직후 제대나 감실을 향해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공경을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 의미 없는 동작입니다. 성체를 모시러 나올 때 성체 앞에서 인사를 하고, 성체를 모신 다음에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굳이 감실에 인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체를 모시고 나서 자리에 돌아와서는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내 안에 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영성체 후 십자성호를 긋는 것은 어떨까요?

역시 불필요한 동작입니다. 영성체 후에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하나가 되었음에 감사드리고 침묵 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2차 헌금 안내

- \* 연중 20주일 미사에서는 어려운 이웃 본당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미리 정성껏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 연중 20주간 모임 안내

- \* 8월 17일(일): 하상회(오전 11시 30분)  
안나회(오전 11시 30분)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시 30분)  
Grand Knight 임명식(오후 12시)
- \* 8월 22일(금): 울뜨레아 회합(저녁 8시)  
배드로회 자매 모임(저녁 8시)  
바오로회 자매 모임(저녁 8시)

### 3. 연중 21주간 모임 안내

- \* 8월 24일(일): 루가회 월례회의(오전 11시 30분)  
요한회 월례회의(오전 11시 30분)  
하상문화원 이사회(오전 11시 30분)
- \* 8월 26일(화): 은혜의 밤(7시 30분 미사 후 부터)
- \* 8월 27일(수): 은혜의 밤(저녁 7시부터)

### 4. CCD/CYO 주일학교 등록

- \* 2025-2026 주일학교 등록을 시작합니다.
- \* 등록기간: 8월3일부터 9월 14일까지  
(9/14 이후에는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 등록비: 학생 1 명당 \$100
- \* 등록 장소: 2시 미사 후 하상관 교무실
- \* 8월 3일(일)부터 학부모님들께 구글폼 링크를 통해 등록 안내를 드릴 예정이며, QR 코드가 포함된 안내 표지판도 하상관 근처에 비치될 예정입니다. 주일학교 활동(복사, 오케스트라, 성가대)에 참여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주일학교에 등록해야 합니다.
- 문의: CCD(유치부-8학년) 임형준 이레네오 교감  
(703) 624-8196  
CYO(9학년-12학년) 구아름 데레사 교감  
(703) 599-8869

### 5. 어버이 성서 모임 가을 학기 모집

- \* 신청: 8월 24일까지
- \* 과목: 요한 복음, 사도행전, 이사야
- \* 문의: 오재노 로사 (703) 772-7275
- \* 신청 링크: QR Code



### 6. 은혜의 밤 (성령 기도회 주최)

- \* 일시: 8월 26일(화) 7:30 미사 후, 8월 27일(수) 7시
- \* 주제: "악은 지혜를 이겨내지 못한다." (지혜서 7:30)
- \* 강사: 김현우 바오로 신부님
- \* 게시판에 있는 포스터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7. 반주자 교육

- \* 일시: 8월 23일(토) - 9월27일(토) 매주 토요일
- \* 대상: 본당에서 평일, 주일 반주 봉사하시는 분,  
반주에 관심 있는 분
- \* 강사: 이종훈 야고보 신부  
(교황청 성음악대학교 오르간 전공)
- \* 접수: 8월 17일(일)까지 전례부장님께

### 8. 성가대 교육

- \* 일시: 8월 24일(일) 오후 12시-1시 30분
- \* 주제: 가톨릭 성음악과 성가대의 역할
- \* 강사: 이종훈 야고보 신부  
(교황청 성음악대학교 오르간 전공)
- \* 대상: 성가대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 \* 접수: 8월 17일(일)까지 전례부장님께

### 9. 2025-2026년 하상 한국학교 정규 학기 등록 안내

- \* 대상: 유치부-12학년 재학중인 학생 (K-12<sup>th</sup> grade)
- \* 일정: 2025년 9월 6일부터 2026년 5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오후 1시)
- \* 등록: 7월 14일-25일 구글폼으로 등록
- \* 문의: hasangkoreanschoolva@gmail.com  
이마리아 교장선생님: (571) 215-0479
- \* <http://www.stpaulchung.org> 성당 웹사이트에  
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하상 문화원 페이지)
- \* 학비(Tuition): 등록비 \$50 포함

자녀 수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학비	\$590	\$570	\$550

### 10. 하상 성인 학교 가을 학기 안내

- \* 등록: 8월 24일, 31일, 9월 7일 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접수
- \* 일정: 9월 9일(화) - 12월 5일(금)
- \* 등록금: \$60 ,
- \* 과목: 생활영어, 서양화, 민화, 수지요법, 성악교실,  
키보드, 색소폰, 크로마하프, 기타,장구, 라인댄스
- \* 문의: 김명희 율리안나 (703)217-2775
- \* 안내 및 신청서는 주보대에 배치되어 있으니 세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 성당 홈페이지와 주보를 스마트폰으로

- \* 성당 홈페이지와 주보를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 성당 홈페이지를 QR코드로 만나보세요.(1면 하단)
- \* 본당 주보는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대 앞에서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 12. 2026년 본당 달력 광고 접수

- \* 2026년 본당 달력 광고가 마감되었습니다.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년 광고에 함께 하시지 못한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죄송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 13. 본당 사목보고회가 있었습니다.

- \* 지난 주일(8월 10일) 2024-2025년 결산 보고를 겸한 사목 보고회가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교우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사목적인 부분도 소상히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목에 함께 동행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길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14. 주일 셔틀버스 운행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 \* 출발 시간 및 장소:
  - ▷ 8시 정각: 버크 (Burke Lake Gardens)
  - ▷ 8시 20분: 알렉산드리아
  - ▷ 8시 40분: 애난데일 ( Evergreen APT)
  - ▷ 9시 정각: 비엔나 (Tyson Tower APT)
  - ▷ 9시 30분:성당 도착
- \* 성당 출발 시간 및 장소:
  - ▷ 11시 30분:성당 출발
  - ▷ 12시 정각: 버크 (Burke Lake Gardens)
  - ▷ 12시 20분: 애난데일 ( Evergreen APT)
  - ▷ 12시 40분: 알렉산드리아
  - ▷ 1시 정각: 비엔나 (Tyson Tower APT)
- \* “도로 사정에 따라 운행 시간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주의 전례상식 2] 속풀이 전례 상식

- \*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팔을 벌리나요?

「미사경본총지침」에 따르면, 미사의 주례 사제와 공동 집전자들은 모두 팔을 벌리고 회중과 함께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을 향한 나무처럼 하늘을 우러러 은총을 받아들이는 상징적인 자세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바 벽화에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남아 있어, 이 자세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례적 유산임을 보여 줍니다.

내적으로는 주님의 기도를 마음 깊이 새기며 그분께 순종 하는 자임을 확인하고, 외적으로는 사제와 함께 하느님께 열려 있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손을 합장하고 기도하지만, 원한다면 팔을 벌린 자세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하며,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공동체의 하나됨과 함께 바치는 것을 잘 드러내지만, 전례적으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정서적·위생적 이유로 이 방식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례도 있어, 미사 때마다 손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본당의 날이나 큰 축제 일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요약 정리 ]

1. 사제와 공동 집전자는 공식적으로 팔을 벌리고 기도함.
2. 신자는 손을 합장하는 것이 일반적 임.
3. 개인 요청 시 팔을 벌리는 자세도 가능함.
4. 손 잡기는 전례적으로 권장되지 않으며, 예외적 상황에 만 허용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5년 8월 10일 (연중 제 19주일)

봉헌금	-----	\$ 8,466.00
교무금	-----	\$ 6,750.00
교무금 (신용카드)	-----	\$ 5,180.00
온라인 봉헌	-----	\$ 720.00
합 계	-----	\$ 21,116.00

#### KACM TV 하이라이트

성 정바로로 성당 제공

Cox ch 30, 830  
Fios ch 30

2025년 8월 21일 (목) 오후 5:00-6:00  
2025년 8월 22일 (금) 저녁 8:00-9:00  
2025년 8월 24일 (일) 아침 6:00-7:00

1. 주일강론
2. 가톨릭 소식
3. 응답하라부르심에:아프고 다친 목주를 고쳐주는 목주 닥터의 성소 이야기
4. 가톨릭 영상 교리: 한국의 순교성인

#### 교중미사 예물봉헌

8/17 이번주	스프링필드 구역
8/24 다음주	프린스 윌리엄스

####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http://www.masstimes.org)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